

찬바람 쌩쌩... '핫' 상품으로 겨울 채비 나선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달 매출 16.5% ↑ ...겨울의류 신장 이끌어 광주신세계, 코로나 이후 첫 점등식...위드 코로나 겹쳐 호황

쌀쌀해진 날씨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외부 활동이 많아진 소비자들의 겨울 상품 수요가 늘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는 이른 추위에 겨울 맞춤 상품들로 매대를 진열했다. 1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최저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진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점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5%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겨울 의류 상품군이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여성 의류 매출은 22.1% 증가했고, 골프(25.3%), 아동 의류(45.7%)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올해는 방한복 가운데 짧은 패딩 의류를 뜻하는 '숏패딩'이 유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상품이 붓물처럼 나오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자리한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매장은 지난 13일 한정판 '노벨티 뉴시' 숏패딩 의류를 내놓았다. 주말 이틀 동안 준비된 70장의 절반 이상이 팔리면서 인기를 실감케 했다. 롯데백화점은 일찍 찾아온 추위와 관련한 수요를 잡기 위해 이달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점포 9층 행사장에서는 오는 18일까지 '컬럼비아' '아이디' 특가상품전이 열린다. 롯데의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은 18일부터 21일까지 캠핑용품을 최대 20% 할인하는 기획전을 진

행한다. 박병의 롯데백화점 광주점 영업기획팀장은 "이번 주에도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다음 주에는 광주에 첫 눈 예보도 있어 본격적인 겨울에 돌입할 듯 하다"며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양질의 겨울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주)광주신세계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점포 외관 조명을 꾸렸다. 지난 12일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은 점포 정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열고 화려한 조명 장식을 선보였다. 광주신세계의 금빛 분위기는 내년 1월9일까지 감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지친 고객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18-19일 이틀에 걸쳐 내부 크리스마스 장식도 진행한다. 신세계그룹 SSG닷컴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방한 의류 등 겨울 패션 상품을 최대 80% 할

인 판매한다. 우선 15일부터 1주일간은 겨울 아웃도어 의류와 스포츠용품 등을 최대 75% 할인한다. 스포츠 상품을 20만원 이상 구매하면 SSG머니 1만원 상당을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골프용품은 60% 할인 가격에 내놓는다. 22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백화점 브랜드 의류와 명품 브랜드를 60~64% 할인한다. 이 기간 패션·잡화 카테고리 누적 주문금액별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광주·전남을 포함 전국 이마트는 오는 24일까지 골프상품을 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신세계포인트 회원에게는 66명 추첨을 통해 '랜더스 시그니처 골프 스탠드백'을 증정한다. 다음달 1일까지 이마트 창립 28주년과 연계해 매일 이마트를 택배·새벽배송 무료 배송권도 나눠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 치료제 임상 실시 성인 ADHD 치료용

광주 기업이 모바일 앱으로 성인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치료하는 임상을 벌인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8일부터 성인 ADHD용 디지털치료제 '콜리터'(COLLITEE)에 대한 연구자 임상이 실시됐다고 15일 밝혔다. 콜리터는 광주 (주)다윈테크와 (주)녹스바이오가 공동 개발한 디지털치료제이다. 모바일 앱으로 성인 ADHD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진흥원과 인터넷기업협회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과 실증사업 공동주관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3월부터 한덕현 중앙대학교병원 교수와 연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내 연구자 임상은 이달부터 약 3주 동안 중앙대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진행된다. 해당 치료제가 규제기관의 승인·인증을 받으면 제품이 출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신입행원 입교식 15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1년 신입행원 입교식'에서 송중욱 은행장과 이성욱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입행원 20명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들은 연말까지 전산실습, 현장교육 등 직무연수를 받는다. <광주은행 제공>

보해양조, 이디야와 '복분자 뽕쇼' 만든다

주류·커피 협업 눈길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보해복분자 출시 17주년을 맞아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복분자 뽕쇼를 선보인다. 최근 '곰표 맥주' 등 서로 다른 브랜드 사이 이색 협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보해양조의 이디야커피의 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해양조는 16일부터 복분자 뽕쇼를 전국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해양조와 이디야커피는 복분자 뽕쇼 출시를 기념한 굿즈 이벤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디야커피는 2001년 설립한 이후 국내 최대 매장을 운영하는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로, 최근 뽕쇼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한 뽕쇼 제품을 만들기 위해 보해복분자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수어로 '따뜻한 와인'이란 뜻을 지닌 뽕쇼는 최근 2-3년 사이 커피업계에서 주요 메뉴로 판매되는 등 관심을 얻고 있다. 보해복분자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반적인 주류 판매량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판매량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출시 후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보해복분자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복분자 뽕쇼를 선보이게 됐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보해복분자와 토종 커피 브랜드 이디야의 만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전남 10월 수출 55억달러...최대 실적 경신

광주 반도체·전남 화공품 급증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10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주·전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8% 증가한 54억9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66.9% 증가한 41억44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3억4800만 달러 흑자였다. 한 달 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53억87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수출 실적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2년 새 수출액이 가장 적었던 지난해

11월(35억200만 달러)과 비교하면 60% 이상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10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479억7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3% 늘었고, 수입도 358억8300만 달러로 47.5%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20억96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달 수출은 화공품 수출에 힘입어 전남지역이 크게 증가했다. 광주의 수출은 지난해 13억2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것에 비해 전남은 41억6400만 달러로 무려 89.3%나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광주가 반도체(37.1%), 가전제품(3.4%), 기계류(19.0%), 타이어(4.9%)가 늘었고, 전남은 화공품(73.0%), 석유제품

(163.3%), 철강제품(118.9%), 기계류(152.0%) 등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2999.52 (+30.72) |
| ↑ 코스닥 | 1029.03 (+19.96) |
| ↓ 금리(국고채 3년) | 1.912 (-0.056) |
| ↓ 환율(USD) | 1178.40 (-1.20) |

광주·전남 9개사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포함

올해 2·3회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에 광주·전남 9개사 제품이 포함됐다. 광주지방조달청은 '2021년 제2·3회 우수조달물품'에 광주 3개사·전남 6개사 제품이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광주·전남 우수조달물품은 71개사 8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우선구매제도 등의 지원을 받게 되

며, 지난해 우수제품 구매액은 3조5000억원 상당이었다. 우수조달물품에는 광주시 광산구 영광항호의 '기밀강화부재를 이용한 금속제창'과 주식회사 천풍(무안), 주식회사 정희(여수), (주)동성기업(장흥), (주)하이코리아(광주 광산구), (주)하나투스(광주 서구), (주)병황씨원(나주), (주)휴먼아이티솔루션(목포), 주식회사 동천기공(장성) 등의 제품이 선정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